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
공동 선정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숲길

2023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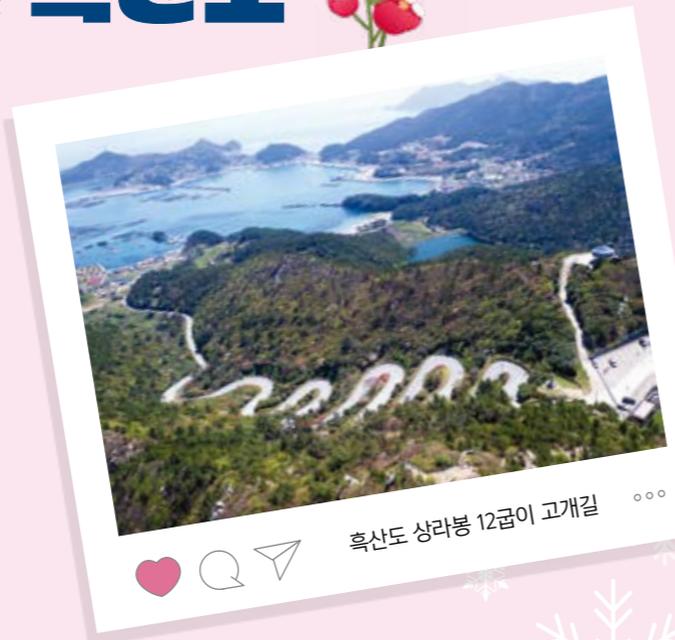
신안 압해도 & 흑산도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에서 한겨울 만발한 애기동백숲 걷기. 5,000만 평의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정원 조망

흑산도 화려하게 만발한 겨울 동백숲.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일주도로. 흑산도항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상라산 전망대

*2023 겨울철 찾아가고 싶은 섬 5곳 : 신안 압해도, 흑산도, 인천 석모도, 거제 지심도, 통영 장사도



흑산도 상라봉 12굽이 고개길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 14회

문안나 조풍류 박명관
유점자 명인, 흑산 동박새

겨울기획 따끈따끈, 신안의 맛&멋 공간 5곳
정책특집 청년어민에게 배를, 비상날개를



신안
햇빛연금
스킷년금

안좌도 발전용량 288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144~48만원
2022년 4회 총 144~48만원
2023년 3회 총 204~51만원

조합원 2,493명 28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9.11.

자라도 발전용량 24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4회 총 204~68만원
2022년 4회 총 204~68만원
2023년 3회 총 204~51만원

조합원 273명 2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19.9.6.

지도읍 발전용량 100MW

주민 1인당 수익
2021년 2회 총 52~22만원
2022년 4회 총 96~44만원
2023년 3회 총 72~33만원

조합원 3,255명 33개 마을

사옥도 발전용량 50MW

주민 1인당 수익
2022년 4회 총 240~88만원
2023년 3회 총 180~66만원

조합원 534명 4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0.1.17.

임자도 발전용량 99MW

주민 1인당 수익
2023년 3회 총 120~30만원

조합원 2,948명 24개 마을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8.10.

현재 수익금 배당지역

사치도 발전용량 26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600~300만원

전체 주민 72명

장산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30~10만원

전체 주민 1,523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신의도 발전용량 25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408~136만원

전체 주민 1,516명

비금도 발전용량 30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204~68만원

전체 주민 3,516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4.4.

증도 발전용량 1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444~148만원

전체 주민 1,460명

하의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4년 연간 42~14만원

전체 주민 1,681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2.1.14.

2024년 4월부터 수익금 배당 예정

병풍도 발전용량 2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156~52만원

전체 주민 304명

고이도 발전용량 3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26년 연간 348~116만원

전체 주민 214명

마산도 발전용량 40MW

주민 1인당 수익(예상)
2030년 연간 600~520만원

전체 주민 1,523명
주민·군 협동조합 설립 2021.11.19.

2026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2030년 이후 수익금 배당 예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2023년 12월 현재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신안군-발전소가 공동 참여해 지분을 갖고, 발전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민들에게 수익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2021년부터 분기당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당금의 별칭이 ‘햇빛연금’입니다.

- 신안군 14개 읍·면 중 3개 읍면(안좌·지도·임자)에 지급되고 있는 햇빛연금은 2023년 11월 말 기준 누적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 2023년 신안군은 햇빛연금 혜택을 못 보는 11개 읍·면의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연간 40만 원씩, 총 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 2024년 하의도까지 태양광이 설치되면 신안 태양광에너지는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인 1.1GW로 늘고, 연금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5%로 확대됩니다.

• 주민 수익금 배당 참여지분권리

	전입신고일~	1년~	2년~
40세 이하	100%		
50세 이하	50%	100%	
50세 이하		50%	100%

• 신안 햇빛연금 문의 061-240-8774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과)



발행 2023년 12월
 발행처 전라남도 신안군
 편집 기획홍보실
 주소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전화 061)240-8360~5
 팩스 061)240-8575
 표지 송공항 물김 경매현장
 (관련글 42쪽)
 촬영 오종찬

 (재)신안군장학재단 후원 안내
 061-240-8777

 신안군 귀농·귀어·귀촌 안내
 061-240-4126
 shinan.go.kr/home/refarm

- 02 신안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주민배당 현황
- 05 2023 연중특집 신안 만인보 ④
1004카페 주인장 소프라노 문안나
자은도에 정착한 한국화가 조풍류
도초면 농수산팀장 박명관
섬 민속예술의 명인 유점자
치사랑의 귀여움 흑산 등박새
- 21 겨울기획
신안에 감칠맛 더하는 따끈따끈 맛&멋 공간 5곳
도초 지남리피자집·비금 카페 천일염
암태 서용선미술관·암태 남하부역·압해 1004책방
- 32 리뷰
신안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 38 섬 이야기 ⑥섬과 무인도
버려진 섬? 알고 보니 보물섬
- 42 생생현장
김, 바다에서 나오다
- 46 신안뉴스
신안 바다 위에 무료 와이파이 외
- 52 정책특집
청년어민에게 배를, 비상익 날개를
- 58 군수편지
000



문화예술 쉼터로 변신할
1004카페로 놀러 오세요

 신안 만인보 1

1004카페 주인장 소프라노 문안나



지도읍 1004카페를 운영하며 공연도 하는 소프라노 문안나 씨.

도초도 출신, 소프라노. 목포에서 와인 보틀샵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음악협회 신안지부를 결성, 지부장을 맡고 있다. 신안과 목포를 오가며 일과 가정을 챙기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그곳은 1004카페다. 지도읍 신안갯길타운 옆에 있는 1004카페는 신안군청이 관리하는 곳이다. 신안군청의 위탁운영 공모에 참여했고, 내가 새 운영자로 선정됐다. 한동안 닫혀있던 카페를 리모델링해 지난 10월 말 다시 열었다.

커피나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다. 이곳을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어 카페 운영을 맡았다. 늘 전시와 공연으로 북적대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 내가 바라는 1004카페의 미래다. 지도읍에 사는 직원이 카페에 상주하고, 나는 신안과 목포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지금은 초청 공연이 많아 일주일에 2~3일 정도 카페에 나간다. 음악인인 직원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 공연을 하기도 한다.

음악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던 중학생 때다. 도초중학교에 다닐 때 클래식 공연단이 학교를 찾아와 공연했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고운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꿈이 생겼다.

대학에 입학해 성악을 전공했고 음악인

으로 활동하고 싶었다.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대학을 졸업하던 2003년 결혼하면서 잠시 꿈을 접어뒀다. 그때는 10년 넘게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는 일이 유일한 음악 활동이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유가 생겼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됐고, 대학원 수료 후 성악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원을 수료한 2017년 유달오페라단을 결성했고 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주로 축제,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했다. 지금도 초청공연이 대부분이지만, 단체가 기획하는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해왔다.

2022년에는 신안 출신 음악인을 중심으로 한국음악협회 신안지부를 결성했다. 신안 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 자체 예산으로는 어려워 전남문화재단·교육청·지자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 흑산도, 홍도 등에서 공연했고, 5시간 걸리는 뱃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거도를 찾아가 공연했다.

섬 학교 공연을 다니면 학생 수가 갈수록 적어지는 현실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 홍도 학교에 갔을 때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공연단은 10명인데 학생은 3명이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섬 학교의 현실이 안타까웠고, 섬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단단하게 다졌던 것 같다. 어쨌든 섬 학교에 가는 일은 즐겁다. ‘섬소녀’인 내가 섬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다니, 내심 뿌듯하다.

애창곡은 이미지 선생님의 ‘섬마을 선생님’이다. 어릴 때부터 자주 불렀던 노래라 친숙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신다. 이미지 선생님의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특히 이 곡은 너무 아름답다. 클래식 공연을 주로 하지만, ‘섬마을 선생님’은 나의 레퍼토리에서 빠진 적이 없다.

앞으로 신안에서, 섬 주민들과 함께 재

미나고 즐거운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신안 섬에서 활동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나를 키워준 내 고향 신안이 활기를 되찾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다. 음악협회 신안지부를 만들고 1004카페 운영을 맡은 이유다. 나의 재능과 열정을 쏟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펼치고 섬 문화관광 브랜드도 성공시키고 싶다. 내가 기획한 ‘섬술랭 칸타타’도 그중 하나다. 섬술랭은 신안 음식과 콘서트를 연계해 개발한 미식문화관광 브랜드다. 주민합창단도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안의 섬과 주민들 속으로 더 깊숙이 스며들어 활동할 생각이다. 그 근거지가 1004카페다. 주민 여러분, 언제든 1004카페로 놀러 오세요! ¹⁰⁰⁴

정리 강성관 사진 오종찬

+

합창단 함께할 주민 단원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임자·지도·증도 주민합창단이 창단된다. 주민합창단은 한국음악협회 신안지부가 지도읍 등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음악협회 신안지부와 지도읍 등은 합창단 운영에 적극 협력해 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안나 지부장은 “섬 주민들과 즐겁게 노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싶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지도읍 1004카페, 음악협회 신안지부에 하면 된다.



주관 한국음악협회 신안지부, 지도읍
문의 010-4179-2100

북 치는 화가, 전입신고는 풍류마당에서



자은도에 정착한
한국화가 조풍류

지난 11월 28일 자은도 구영리회관에서 무료 공연 '남도풍류한마당'을 마치고.

목포 출신. 화가이자 판소리 고수여서 '북 치는 화가'로 불린다. 2년 전 자은도 고장마을에 집을 마련, 서울 작업실과 신안 집을 오가며 신안에 어울리는 풍류마당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점점 회귀본능이 생겼다. 2년 전 우연히 고장마을 언덕에 왔다가 첫눈에 반했다. '이 터전을 만나려고 그동안 내가 자연그림을 그렸구나' 싶을 정도였다. 맞은편 두봉산, 편안한 언덕과 밭, 뒷산 너머 비죽 솟은 풍력 바람개비까지 완벽하다. 풍력 바람개비는 산 너머에 바닷가가 있음을 알려준다.

섬과 바다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다. 어머니 고향은 진도 동거차도, 아버지 고향은 진도 관매도다. 어릴 때 방학마다 목포에서 배 타고 9시간 걸려 섬에 갔다. 섬에선 삶과 죽음의 공존이 크게 느껴졌다. 동거차도 해역은 물살이 특히 세다. 옛날 외할머니 친척들이 집들이 왔다가 멥골도로 돌아가는 중에 배가 뒤집혀 모두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한다. 신안 섬은 진도와 느낌이 또 다르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에 신안 친구들이 참 많았다. 선생님이 친구들 이름 대신 자은! 비금! 도초! 하고 불러서, 나도 그때 섬 이름을 익혔다.

본업은 화가이고, 북과 장구도 친다. 어릴 땐 노래를 좋아해 대학 진학 목표가 대학가요제 출전이였다. 목포 서산동 언덕

에 살 때 동네에 갑식이 삼촌이 있었다. 이 양반이 낮에는 '난닝구'만 입고 매일 드럼을 치셨다. 아마 나이트클럽 연주자였던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린 나도 따닥따닥, 타악에 빠져들었다. 어른들이 소주 대병에 숟가락 젓가락 끼고 두들기며 노래하는 것도 재밌었다. 어머니는 판소리 흥부가 전남무형문화재 보유자이다. 이렇게 살다보니 '흥'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유전자가 된 것 같다. 십년 전 이름을 '풍류'라고 바꿨다.

흥익대 미대를 다녔는데 정작 재학 때는 민중미술 노래패 조직하고, 공연 기획하는데 정신을 팔았다. 1990년대 흥대 거리미술제 1-2회 공연기획단장이었다. 졸업 후에야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채색화* 거장계 4년을 배웠다. 금당벽화만 9개월간 모사했다. 우리나라에 채색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상하게, 남들 안하는 짓에 자주 홀린다.) 수묵화와 달리 채색화는 돌, 황토, 조개껍질 같은 자연물질을 가루로 만들어 염색해 쓴다. 굉장히 정교한 방식이고 재료의 성질도 잘 알아야 한다. 자연안료를 쓰니 그림의 질감이 남다르다.

‘화가가 북을 친다’고 하면 어설퍼 보일 수 있지만, 나름 관록이 있다. 군 제대 후 목포 집에 머물 때였다. 어머니가 판소리 학원을 하셨는데, 북을 가르치던 고수 추정남 선생께서 나한테 “본격 배워봐라, 써 먹을 날이 있을 것이다.”고 하셨다. 1992년 대학에 복학했더니 영화 ‘서편제’가 대히트를 해서 북이 인기였다. 북을 좀 치던 내가 여기저기 불러 다녔다. 그렇잖아도 흥 유전자로 몸이 근질거리는 마당에 자꾸 북 치는 일에 엮이게 되니, 아예 최고 명고인 정화영 선생께 정식으로 배웠다.

나는 장르를 넘나들고 섞이는 걸 좋아한다. 그림과 국악을 융합한 현대미술을 해보고 싶다. 그간 전시 개막 때 국악공연을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둘을 융합한 전시를 해보고 싶다. 그런 점에서 신안은 무궁무진한 도화지이다. 2022년 작가들을 모아 2박3일 비금·도초 스케치 여행을 했다.

비금도 내촌마을에서 몇몇은 소리를 하고, 몇몇은 옆에서 그림을 그렸다. 도초도 ‘자산어보’ 촬영지에서도 소리를 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다. 서용선 작가의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전’ 서울 개막 공연 때도 북을 쳤다. 2024년 광주비엔날레가 국악을 주제로 한다는데, 아예 신안까지 무대를 넓히면 좋겠다.

어머니, 제자 국악인들과 함께 매년 요양병원 등을 찾아가 남도풍류한마당을 열고 있다. 올해는 자은도 구영리회관에서 열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점점 힘드신 데도 아들 동네라고 흔쾌히 오셨다. 어머니는 ‘흥부가’를 부르시고 나는 북을 쳤다. 어머니가 “아들놈 키워놔더니 한량이 돼봤네요.”하셨더니 구영리 어르신들 웃음이 빵 터졌다. [1004](#)

정리·사진 이해영

*수목화와 구분되는 채색 위주의 동양화로, 불화·민화·궁중화 등이 예시.

+ **조풍류의 덩실덩실 ‘두 얼굴’**

지난 11월 27일 자은도 구영리회관에서 열린 ‘남도풍류한마당’에서 어머니 김순자(판소리 흥부가 전남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창의 흥부가에 맞춰 북을 치는 아들 고수 조풍류. 호분, 분채, 석채 등 자연재료를 갈아서 안료를 만든 후 채색화 기법으로 종묘를 그리고 있는 화가 조풍류.



고수 조풍류



화가 조풍류

내 고향 신안, 굳건히 살아남아라!

신안 만인보 3

도초면 농수산팀장 박명관



추곡수매로 바쁜 하루를 보낸 후 도초면사무소 앞에서.

고향은 자은도. 16년차 수산직 공무원. 2007년 흑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신안, 전남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를 거쳐 다시 신안에 왔다.

열심히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가 됐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에서 신안으로 전입해 도초면사무소 농수산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팀장님은 돌아온 연어 같아요.” 직원이 내게 그렇게 말하더라.

대학 시절엔 열심히 음악만 했다. ‘아날로그 소울’이라는 인디밴드를 결성하고 노래도 냈다.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온다. 음악을 오래 하려니 직업이 있어야겠더라. 수질환경,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 2개를 한 번에 땀다. 환경 관련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시험을 봤다.

읍면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본청(신안군청)에 왔는데 당시 팀에 계장님과 신입 직원인 나, 둘뿐이었다. 한창 바쁜 중에 예인선이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가 났다. 방제작업을 하던 어느 날 다른 사고가 터졌다. 연일 강행군으로 무리한 탓에 정신이 몽롱했다. 7m 높이 방파제에서 그만 발을 헛디뎠다. 온몸이 돌에 부딪히다 뺨에 떨어져 폭, 박혔는데 그 순간 하늘이 눈부시게 파랗다. 그 와중에 “아! 나 이제 좀 쉬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나더러. 수산 직렬 공무원들은 서로를 ‘해적’이라 부른다. 바쁘고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해적들끼리 신안 바다를 누비던 시절이 즐거웠다.

2009년쯤 큰 태풍으로 바다에 쓰레기가 몰려왔다. 당시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과 재해 수습 현장을 함께 다녔다. 문득 중앙부처 생활이 궁금해졌다. 밤낮으로 공부해 전남도, 해양수산부 전입 시험을 쳤다. 일은 적성에 맞았다. 해양폐기물이나 오염퇴적물 관련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굵직한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재밌고 보람찼다. 흑산공항 검토·협의 기관이 해수부였다. 고향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도 느꼈다. 수산정책 관련 업무들은 거의 다 해 본 것 같다.

돌아보니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른 채 모니터만 보고 있었다. 동료 직원들의 늘어나는 흰머리만 눈에 띄었다. 예산철 같이 바쁠 때는 그냥 사무실에서 자는 게 편했다. 대형 이슈라도 생기면 새벽 4시에 퇴근한 날에도 아침 6시 반에 다시 출근했다.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

왔고, 철없던 해적 시절이 그리웠다. 잠깐 브레이크를 걸기로 했다.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왜 다시 내려가냐고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 최선을 다했기에 고민은 되지 않았다. 뒤늦은 사춘기를 겪는 나를 달래러 고향 신안으로 왔다.

중앙에는 중앙의 일이, 지역에는 지역의 일이 있다. 지금은 날마다 현장을 다니느라 바쁘다. 업무현장이긴 하지만 흠냄새, 바다 내음이 마음에 위안을 준다. 고향을 떠나 잊고 살았던 것들이다. 나 역시 어렸을 땐 섬이 싫었다. 시간만 나면 육지에 나가고 싶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초년생 시절 이해가 안 가던 계장님의 행동들도 이제는 이해가 간다.(웃음) 기초, 광역, 중앙부처를 거치며 시야가 넓어졌다. 내

가 경험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보탬이 되고 싶다. 업무에 관한 것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틈틈이 글로 정리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시대의 큰 흐름이고, 숙제다. 신안군이 앞으로도 계속 독자적인 섬 지자체로 남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지역민 모두가 경제, 문화,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터전을 지키는 이들도, 나처럼 돌아온 이들도 언제든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은 내가 아니라 나의 고향, 신안이었으면 한다. [📖](#)

정리·사진 노현서

*강산에의 노래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목.

+ 박명관 씨의 휴식처,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

환상의 정원, 수국정원과 함께 도초도에 오면 꼭 가 봐야 할 곳이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유배 중 바다 생물을 관찰해 집필한 조선 최초의 어류도감이다. 자산어보의 실제 배경은 흑산도다. 이준익 감독은 도초도 서쪽 해변의 빼어난 풍광에 반해 촬영지로 정했다. 2022년에는 드라마 <슈룹>의 촬영지로도 쓰였다. 다도해를 바라보는 네모난 초가집이 액자 역할을 하는 덕에, 대청마루에 쏙 걸터앉기만 해도 ‘인생 샷’을 찍을 수 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기 좋다. 해가 뜰 무렵, 노을 질 무렵의 풍경도 더할 나위 없다.



그녀의 집념이 없었다면 신안 민속예술은 어찌 됐을까

신안 만인보 4

섬 민속예술의 명인 유점자(劉点子 1937~현재)

비금 밤달애 문화를 시연하고 있는 유점자 명인.



1937년 영암 출생. 25세에 비금도 정착. 신안씻김굿 기능보유자이자 명창이다. 뽕뽕기강강술래, 밤달애놀이 등 신안 민속예술을 발굴, 보존해 전승하고 전국에 널리 알렸다.

유점자는 신안의 민속예술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신안씻김굿 기능보유자이자, 신안 섬 문화를 대표하는 민속예술인 비금도 뽕뽕기강강술래와 밤달애놀이를 전승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1937년 영암군 덕진면 노송리에서 태어났다. 나주 영산포에 살던 안득용과 결혼한 후 25세 때 비금도로 들어왔다. 흔히 ‘굿’이라고 부르는 무속업을 배운 것은 시어머니를 통해서였다. 섬에 온 후에는 도초의 이름난 무속인 ‘김이삐’에게 배웠다. 그의 밑에서 장단과 사설을 익히며 무속에 대한 인정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섬 지역은 별신굿이나 당굿 등 굿 문화가 활발했다. 바다에서 어업 중에 비명횡사한 사람이 많아 무속의례에 대한 수요도 많았다.

씻김굿은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산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민간신앙이다. 유점자는 굿을 통해 섬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묵묵히 비금도를 지켜왔다. 신안의 씻김굿은 비금도와 장산도의 무속인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왔다. 유점자 명인의 굿은 사설이 유창하고 다채로운 것으로 유명했다.

비금 뽕뽕기강강술래 전승 “강강술래의 원형에 가장 가까워”

그는 신안의 고유한 민속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중에서도 비금도 뽕뽕기강강술래 보존회를 결성하여, 2005년 제32회 남도문화제에 참가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신안 강강술래는 일명 뽕뽕기(뽕뽕뽕기)라고 부른다. 빠른 장단과 함께 춤이 점점 속도를 높이면서 참여자들이 원형을 그리며 뛰어놀게 된다. 일반적인 강강술래는 여성들의 놀이문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금과 도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안 뽕뽕기는 남녀가 함께 강강술래를 연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속학자 이윤선은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 강강술래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했다.

뽕뽕기는 놀이판 자체가 역동적이었고, 마을과 마을의 끈끈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했다. 당시에는 그 명맥이 끊긴 상태였는데, 유점자 명인이 뽕뽕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앞장섰다. 보존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 그는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러 다니면서 뽕뽕기강강술래를 복원해

남도문화제에 참가해야 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 와중에 남몰래 흘린 눈물도 많았다. 처음에는 기본 구성원을 채우기도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연습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기어코 50여 명의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보존회의 모습이 갖추어졌다. 그 결과 2005년 강진에서 열린 남도문화제에서 종합 대상을 차지했고, 다음해인 2006년 제47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했다.

뽕뽕기강강술래는 학생들에게도 전수되었다. 이는 민속예술을 통해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모범사례가 되었고,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유점자 명인의 집념이 없었다면 비금도 뽕뽕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지 모른다.

섬 민속예술 보존회 대회 석권 섬살이 애환 풀어준 명창

신안군 민속예술 전승과 관련된 두 번째 공적은 섬 고유의 장례풍속인 ‘밤달애놀이’를 재현한 것이다. ‘밤달애’는 서남해 도서지역에 전래되는 흥겨운 분위기의 장례문화를 일컫는다. 망자의 혼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인데, 호상(好喪)을 당한 상가(喪家)를 위해 섬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밤샘을 하며 치루는 풍속이다. 민속학자 최덕원은 ‘밤달애’라는 명칭을 ‘밤’과 달래다의 고어인 ‘달애’의 복합어로 분석한 바 있다. ‘밤을 새며 달래준다’는 의미이다. 신안의 섬에 폭넓게 전해온 민속문화였는데, 이 역시 명맥이 단절되고 있었다.

유점자 명인은 비금도의 미풍양속이 담긴 밤달애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 남도문화제에 비금도 밤달애놀이 보존회를 구성하여 출전했다. 세부적인 연출과 고증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이운선 교수가 도움을 주었고, 유점자 명인은 지도와 소리를 맡았다. 뽕뽕기강강술래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보존회원이 결성되었다. 밤달애놀이는 토속민요와 즉흥극으로 구성되고, 망자를 보내는 고평이·씻김굿·상여놀이를 포함하고 있다. 넘치는 해학, 망자를 위로하는 숙연한 분위기가 공존한다. 밤달애놀이는 전남 대표로 출전한 2012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을 받았다. ‘비금’이라는 작은 섬이 대한민국 민속예술축제에서 두 번이나 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유점자 명인은 씻김굿에 탁월한 무속인인 동시에 최고의 목청을 지닌 명창이기도 했다. 특히 막걸리처럼 진하고 토속적인 음색이 섬마을 민요에 제격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잔함과 한 많은 삶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있다.

유점자 명인은 섬마을 토속민요의 발굴과 노년층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2006년 ‘천사섬 민요합창단’을 신안문화원 내에 조직하여 활동했다. 천사섬 민요합창단은 전통문화단체가 전무했던 신안군에서 민속예술단 역할을 수행하며, 신안 민속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점자 명



빠른 장단에 남녀가 함께 하는 비금도 뽕뽕기 강강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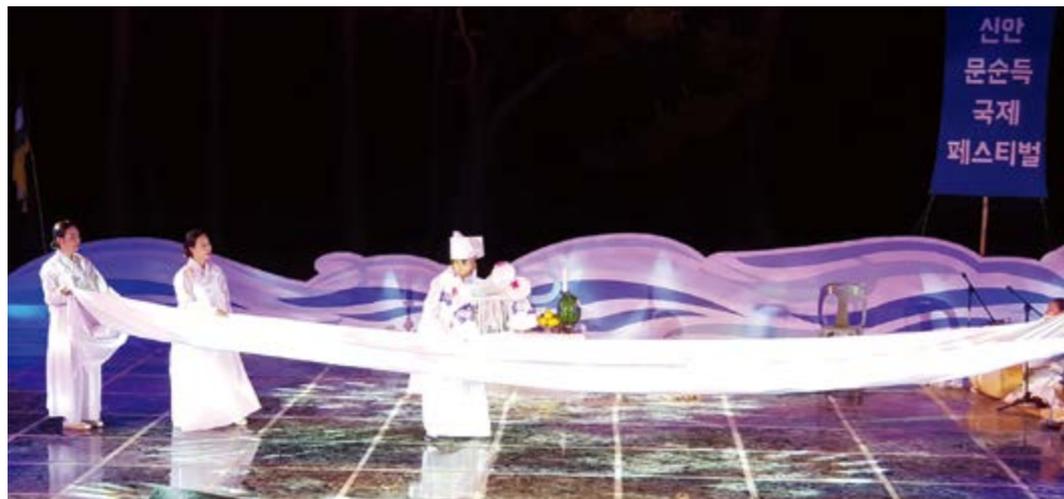
천사섬 민요합창단과 공연을 마친 후.

인은 2011년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인 신안씻김굿 기능보유자가 된 2013년 이후에는 후학을 양성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에서 시연을 해왔다. 몇 해 전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때 무속인이라는 괘시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신안 민속예술의 위상을 정립해나갔던 명인 유점자. 지난 10월 자은도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서 유점자 명인에게 헌정하는 피아노 연주가 펼쳐지기도 했다. 그의 수준 높은 민속예술과 열정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란다. ¹⁰⁰⁴

글·사진 최성환(목포대 사학과·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신안 씻김굿을 시연하고 있는 유점자 명인.





흑산도 새공예박물관에 있는 동박새 목각공예.

어쩌나, 우리집 가훈이 무소유인데

신안 만인보 5 흑산 동박새

11cm 크기의 작은 참새목 조류.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텃새이자 나그네새이며 신안 대부분의 섬에 서식한다. 먹이는 곤충, 열매, 화밀 등이다.



나는 흑산도에 사는 동박새다. 집안에 전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 가문은 일찍부터 흑산도에서 살았다. 주로 동백 같은 상록수 꽃의 꿀을 좋아하는데, 흑산도는 동백숲이 울창해 낙원과 같다. 옛날 흑산도 사람들은 동박새를 잡아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했다. 그럴 땐 대나무로 집을 만들어줬다. 고맙긴 하지만, 새장

이 아무리 멋진들 숲속의 내 집만 할까.

섬을 찾은 관광객에게 동박새와 새장을 세트로 팔기도 했다. 아이들도 그런 방식으로 용돈을 벌었다. 고향을 떠나 낯선 육지로 가는 건 솔깃하고도 괴로운 일이었다. 한 번쯤 대처 구경을 해보고야 싶지만, 영영 돌아올 수 없다면 그건 가혹한 일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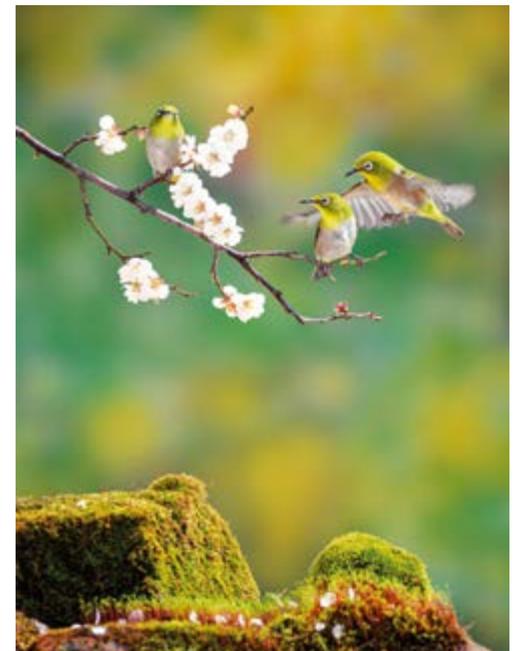
동박새가 왜 애완용으로 사랑받았나고? 자화자찬 같지만... 모습이 무척 아담하고 귀엽기 때문이다. 나를 한번 보기 바란다. 언뜻 참새 모양이지만, 우리는 화사한 연둑빛 외투를 입고 있다. 참새는 흉내도 내지 못할 우아함이다. 최고 매력은 바로 눈가의 흰 테두리다.(우리의 영어 이름은 white-eye) 빨간 동백꽃 속에 연둑빛 동박새가 머리를 들이밀고 꿀을 따다가 하얀 눈을 깜빡거리는 모습. 이건 뭐, 같은 동박새인 내가 봐도 치사량의 귀여움이다. 탐조가들은 그런 우리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발품을 팔기도 한다. 말 그대로 화조도(花鳥圖)라며 극찬을 한다. 게다가 우리는 목소리도 곱다. 흔히 목소리 좋은 사람을 ‘피꼬리 같다’고 비유하는데, 우리들 목소리도 못지않다. 옛 흑산도 아이들은 동박새 목소리를 들으며 맑고 착한 어른으로 컸다더라.

다시 전설 이야기로 돌아오자. 때는 1952년 여름, 전남대 학생 네 명이 흑산도에 놀러왔다. 이들은 동박새 새장을 사 들



흑산도 신안철새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동박새 새장을 든 청년들’ 사진. 맨 오른쪽이 박재철이다.

매화꽃과 동박새.



고 진리해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난 후 박재철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구입한 새장 문을 열어 동박새를 숲으로 날려 보냈다. 구사일생으로 섬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 동박새는 진리 숲으로 들어갔다. 고향마을로 돌아갈까 하다가, 청년의 행동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홀로 새 일가를 이루기로 한 것이다. 그 분, 아니 그 새가 바로 우리 가문의 시조이시다.

시조를 돌려보낸 청년 박재철은 누구인가. 바로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법정스님이다. 거짓말 아니냐고? 흑산도 신안철새박물관에 증거가 있다. 1층에 법정스님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 동박새 새장을 들고 있는 청년들 사진이 전시돼 있다. 그 흑백사진을 음미한 후 창밖을 보라. 창 너머가 바로 진리해변이다. 간척이 되어 1952년 사진과는 경관이 많이 달라졌지만, 바닷가 언덕의 절은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시력이 좋다면 흑백사진 속 새장에 있는 우리 시조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

동박새는 신안 섬 곳곳에 살지만, 요즘은 동박새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압해도가 인기가.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 아기동백숲이 울창해지면서부터다. 우리는 거길 ‘압해신도시’라고 부른다. 아직은 겨울 한철을 보내는 월동지이다. 그런데 신안군 보도자료를 보자.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동박새가 동백꽃 꿀을 찾아 압해도 분재정원 15,000평에 이르는 아기동백 군락지를 찾아 이동해온 것으로 보인다. 동박새들이 꿀을 먹고 동백꽃을 수정시킴으로써 앞으로 아기동백 군락이 넓어지고, 번식까지 가능한 서식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계절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소리다. 전망이 이렇다 보니 요즘 동박새 사회에서 이주 열풍이 뜨겁다. 1004섬 분재정원에선 여름과 겨울에 꽃축제도 열리고, 볼거리도 풍성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젊은 새들은 압해신도시로 이사 가자고 조르거나, 홀로 이주를 감행하기도 한다. 중년인 나야 조용한 곳이 좋지만, 젊은이들은 이벤트가 많은 공간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우리 집 아이들도 이사 가자고 성화다. 내가 “고향이 제일이야.”라고 하면 “입주비가 급등하기 전에 가서 시세차익만 얻고 돌아오자.”고 받아친다. 고민이다. 우리 집안 가훈이 법정스님의 무소유 철학인데...

그건 그렇고, 겨울이 왔다.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에 아기동백이 만발했다고 한다. 우리 동박새를 보고 싶다면 1004섬 분재정원으로 가보시라. 사진을 잘 찍어 SNS에 올리면 조회 수가 폭발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1004](#)

글 이해영

신안에 감칠맛 더하는 따끈따끈 맛&멋 공간 5곳

2023년 신안 중부권에 멋스럽고 맛있는 공간들이 여럿 생겨났다. 특히 양곡창고, 폐교 등 오래된 공간의 변신이 두드러졌다. 새해를 맞아 기분 좋은 떨림을 주는 이 공간들을 소개한다. 한 곳씩 천천히 맛보고 마음 속 지도에 저장, 꼭! 글·사진 노현서



도초 지남리피자집 · 비금 카페 천일염 · 암태 서용선미술관
암태 남하부엌 · 압해 1004책방



옛 도초서초교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한 지남리피자집. 수국정원 초입에 있어 정취가 좋고, 네 종류의 피자가 모두 인기 만점이다.



우리 피자는
도초도 스타일

도초도
지남리피자집

지난 7월 옛 도초서초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빨간 대문 피자집은 추석 고향을 찾는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한 판 맛보고 한 판 더! 주문과 포장 행렬이 이어져 하루 30판 한정 판매하는 피자가 매일 2~3시간 만에 동났다. 피자를 좋아하는 청년 대표가 연구 끝에 자신만의 피자를 완성했다. '도초도 스타일'이라 불러달라고. 도우를 얇게 펴내어 식감

이 바삭 쫄깃하고, 맛이 부담스럽지 않고 담백하다. 도우를 48시간 숙성시켜 구워내고, 자연 치즈만을 고집한다. 메뉴는 피자 4가지. 기본 치즈피자, 짬짬고소 페퍼로니 피자, 시그니처 트러플 양송이 피자, 한 가지는 시즌메뉴다. 여름에는 파인애플을 올린 하와이안 피자, 가을에는 바베큐 치킨피자를 판매했다. 어떤 시즌 메뉴가 있을지 기대하는 재미를 준다. 새하얀 실내에 햇살이 가득 들어와 분위기가 포근하다. 피자가 나오면 절로 인증샷을 찍고 싶어진다. 피자에 따뜻한 얼그레이 홍차를 곁들이면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준다. 피맥(피자+맥주)도 실패 없는 조합으로 추천.

도초면 도초서길 246-11(도초수국공원 앞). 일~목 정오 12시~오후 8시(금·토 휴무). 애플페이 결제 가능. 문의 네이버 블로그 '지남리피자집', 인스타그램 @jinamri_pizza에 최신 정보 제공



소금의 고향에서
맛보는 명품 소금빵

비금도 카페 천일염

지난 5월 신안천일염센터 2층에 문을 연 빵집 겸 카페.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 전북 무주리조트 등에서 제과장으로 근무한 40년 경력 조운빈 셰프가 매일 따끈한 빵을 굽는다. 아침 9시 30분에 첫 빵이 나온다. 인기 탑3는 소금빵, 대식빵, 대파빵. 그중 1위는 단연 천일염이 콕콕 박힌 소금빵. 비금도는 광복 후 섬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천일염 생산에 성공한 곳이며, 신안천일염센터 자리는 근대 문화유산

인 대동염전이다. 이곳에서 '단짠단짠' 소금빵을 맛보고, 곳곳에 전시된 소금 관련 '깨알 지식'들을 읽으면 더욱 재미가 있다. 대식빵, 몽블랑, 크로와상 등 페스츄리 류도 추천. 담백하고 결이 살아 있어 셰프의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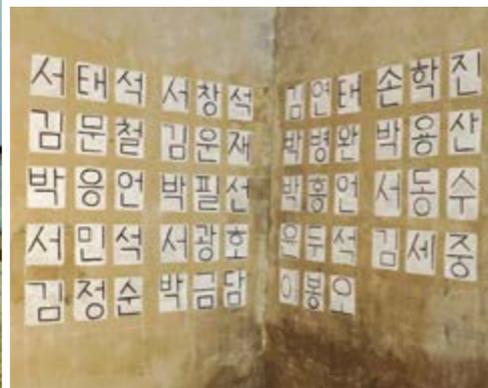
카페 천일염 표 파스타도 별미다. 크림, 토마토, 로제 3종류를 판매한다. 진한 소스에 통통한 신안 새우를 곁들인 정갈한 파스타는 한 끼 식사로 훌륭하다. 카페 천일염은 비금 가산항과 차로 5분 거리다. 맛있는 휴식을 즐기고, 가족에게 건넬 빵을 포장해 길을 나서면 배도 마음도 든든. 지역에서 생산한 다양한 천일염 가공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비금면 서남문로 305-31(신안천일염체험센터 2층).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하절기는 8시까지. 월 휴무). 케이크 주문예약 가능. 파스타는 3인 이상 시 예약 권장. 문의 010-5473-5141



소금빵, 대파빵 등 신안 특산물을 활용한 명품 빵들의 향연. 소금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1층은 천일염 체험센터이며, 창밖의 덕산(81m) 바위 경관도 멋스럽다.





100년의 기억을 재현하는 방법
암태도 서용선미술관

항일농민운동이다. 전국 소작쟁의의 도화선이 된, 1920년대 대표적인 농민운동으로 꼽힌다. 전시는 농민의 상징적 공간인 미곡창고의 원형을 최대한 살렸다. 관람객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창고를 한 바퀴 돌며 8가지 장면으로 구성된 암태소작항쟁을 만나게 된다. 관람객을 360도로 감싸는 전시는 당시 현장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준다. 다섯 번째 장면 '재판'은 텀블벅 펀딩 참여자 25명의 그림을 모아 완성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처음에 쓱 지나쳤던 창고 외벽 벽화 두 점의 의미를 알게 된다. 도보 5분 거리에 항쟁기념탑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자.

암태면 단고리 99-1(맞은편 마을주차장 이용). 화~일 오전 10시~오후 5시(월 휴무). 서울 문화비축기지에 서도 전시 중(~2024년 5월). 문의 061-240-8062

옛 농협창고가 암태소작항쟁 100주년 기념 상설전시 공간이 됐다. 역사와 인물에 대한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작업해온 서용선 작가를 신안군이 초청했고, 2022년 6월부터 1년 4개월 작업 끝에 전시가 완성됐다. 1923년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의는 지주와 일제의 부당한 소작료 징수에 맞서 주민들이 치열하게 싸워 승리한



암태도 소작인 항쟁 기념탑

농협 양곡창고를 개조한 전시장이 농민항쟁사의 장소성을 더욱 살려준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도 함께 둘러볼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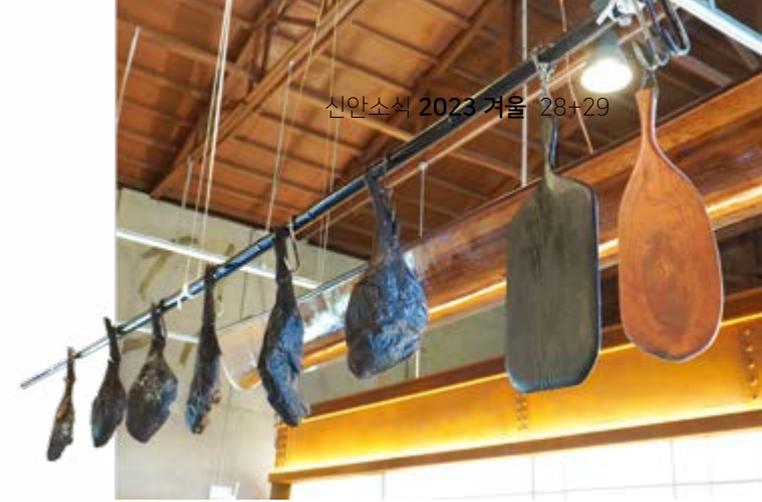
신안 천일염으로 숙성시킨 하몽이 파스타 속에 듬뿍 들어있다. 실내공간이 넓고 단체석도 충분하며, 다양한 장식품 덕분에 눈도 즐겁다.

하몽에 와인 한 잔,
즐거워라

암태도 남하부엌

양식 레스토랑 겸 카페. 입소문난 맛집이 지난 10월 신안으로 이사 왔다. 군이 옛 양곡창고를 공간으로 지원하고, 주인 부부가 폐제품을 활용해 꾸몄다. 식당은 천천히 음식을 즐기며 차분하게 대화 나누기 좋은 분위기다. 양곡창고의 탁 트인 느낌은 살리고, 빈티지 소품들을 더해 완성한 인테리어가 감각적이다.

스페인 대표음식인 '하몽'을 곁들인 요리를 판매한다.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조금씩 썰어 먹는 염장식품의 일종. 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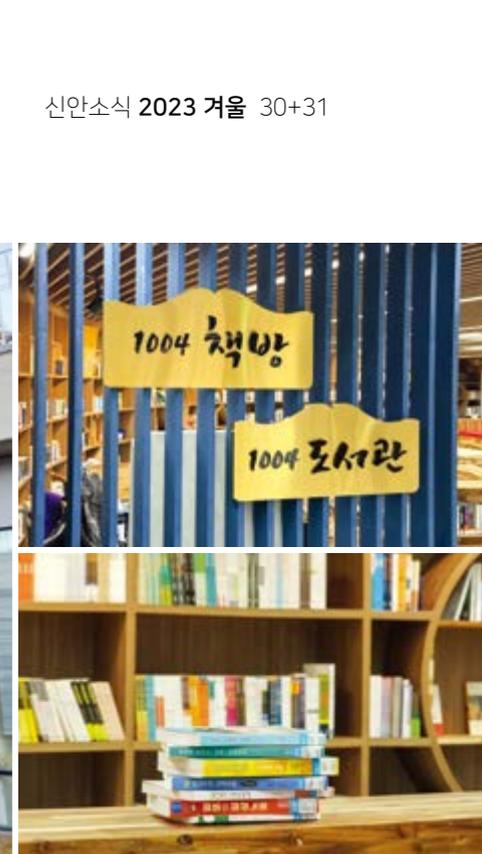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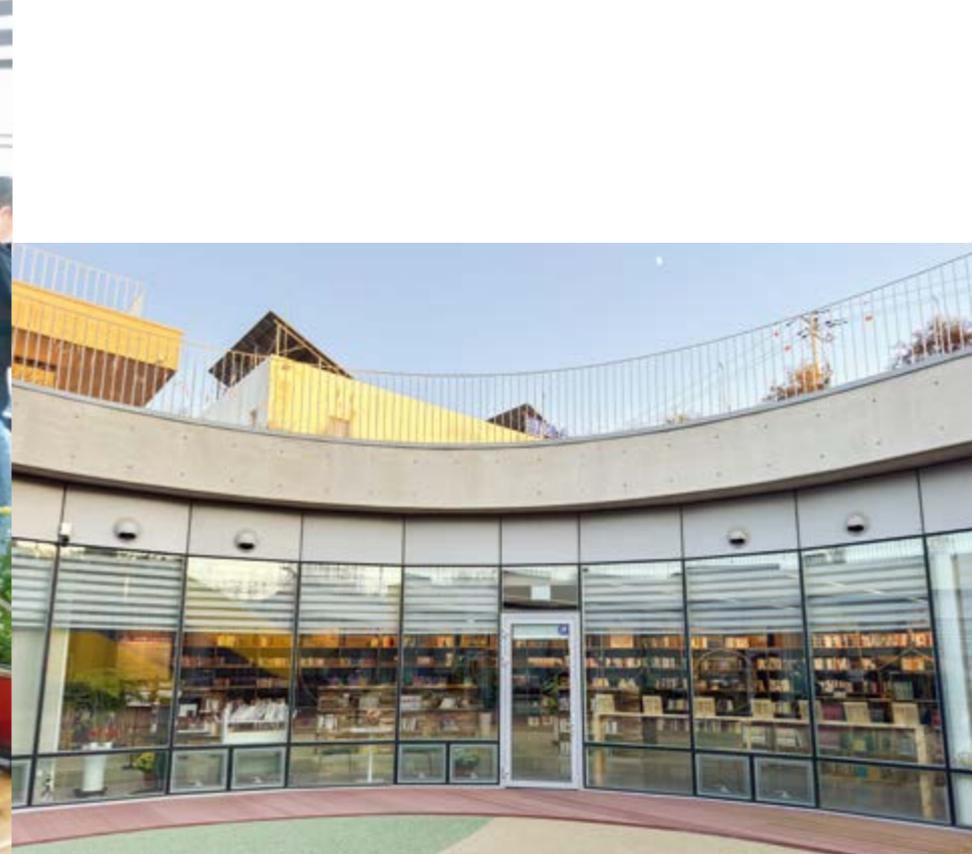


숙성 중인 하몽

부엌은 질 좋은 신안 소금과 산청 흑돼지를 사용해 가게에서 직접 만들고, 최소 2년 이상 숙성한 하몽을 제공한다. 하몽 크림파스타는 부드러운 크림소스와 적당히 짭조름한 하몽의 조합이 좋다. 피자는 배와 루꼴라가 듬뿍 올라가 산뜻하다. 빵, 치즈, 멜론, 하몽으로 구성된 '하몽 플레이트'에 와인을 곁들이면 분위기 내기에 좋다. 식당 옆 공간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있다.

암태면 장단고길 7-81(신안소방서&신안경찰서 건너편).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오후 3~5시는 브레이크 타임. 화 휴무). 식사 주문 시 아메리카노 50% 할인. 단체석, 룸 구비. 문의 0507-1407-2611





‘신안군 1호 서점’ 겸
복합문화공간
압해도
1004책방

이곳이 생기기까지 55년이 걸렸다. 1969년 신안군이 창군된 후 지금까지 신안에는 서점이 한 곳도 없었다. 클릭 몇 번이면 온라인으로 책을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손끝으로 새 책을 만만지고 싶을 땐 목포로 나가야 했다. 신안군이 공간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을 맡고, 출판사들이 책을 후원해 ‘서점 있는 신안’의 첫 장을 넘겼다. 올 10월 문을 연 압해 1004책방은 한 달 만에 회원 510명, 대출

1,843권(23.11월 말 기준)을 넘기며 주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서점, 작은도서관, 문화센터를 겸한다. 신간을 구매할 수 있고, 텃밭텃밭 누워 책을 읽을 수 있다. 군민과 신안 직장인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준다. 반납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립도서관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작가 초청 북토크, 수채화·가야금 등 문화강좌와 전시회가 열리고, 매주 모여 책을 읽는 독서클럽도 운영한다. 이제 막 씨앗을 틔운 책방을 함께 키워나갈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뚝뚝, 두드림은 언제나 환영!

압해읍사무소 1층 신안군가족센터 내. 화~토 오전 10시~오후 7시(일, 월, 공휴일 휴무). 군민 1회 3권까지, 기관·단체는 50권까지 대출. 문의 061-246-7800



1004책방에서는 책을 읽거나 대여하고, 신간도 구입할 수 있다. 복합문화공간답게 저자 초청강좌, 북토크, 콘서트 등도 열리고 있다.





섬에 5천 명이 모이다니 눈물이 날 뻔했다

리뷰 신안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 최근 대한민국 섬들레길 '백섬백길'을 갈무리했다. 이 참관기는 필자가 SNS에 실은 글로, <오마이뉴스>에도 실렸다.
사진 오종찬

지난 10월 21일 자은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의 달' 개막공연. 104대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압해동초교 어린이들과 예술그룹 타타랑이 함께 '신안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섬이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것을 다시 보다니! 감격스러워 눈물이 날 뻔했다. 행사 때문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다시 섬이 융성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신안군이 주최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덕이었다.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린 신안군 자은도만 해도 1970년대 2만 명이 살았는데 현재 거주자는 2,200명에 불과하다. 10분의 1로 줄었다. 우리나라 유인도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0년 987개였던 유인도가 지금은 463개에 불과하다. 40년 사이 절반이 넘는 524개의 유인도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유인도들이 사라지고 섬에 사



임동창 총감독과 국악인들.



보라해 댄스페스티벌



1 연극 '홍여장수 문순득 표류기' 2 개막공연이 열리는 1004뮤지엄파크 중앙무대. 3 방문객의 큰 사랑을 받은 양산 해변 피아노. 4 개막공연 후반 풍류 한판. 5 공연의 연주를 맡은 104대의 피아노.

6 신안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 페스타. 7.8 자은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 9 관객들을 위한 쉼터. 10 청춘마이크 행사. 11 둔장마을미술관에서 열린 노순택 작가의 '신안 만인보'전.

는 사람들이 줄면서 그야말로 섬사람들 자체가 '멸종 위기종'이 되고 말았다.

섬 인구의 두 배가 모여 압해도 초등학교 공연 압권

그런데 자은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기념식장에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자은도 인구의 2배가 넘었다. 한류스타 공연도 아니고 지금까지 섬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행사가 있었던가? 대한민국 섬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이 관객만으로도 행사는 100배 성공한 것이다. 행사 기획을 잘한 덕이다.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섬, 대한민국의 문화다양성의 보고 -1004섬 예술로 날다!'를 주제로 열렸다.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일대에서 열린 행사 기간 중 나

는 마침 EBS '한국기행-백섬백길' 특집방송 자은도 편 촬영차 자은도에 있었고, 그 덕에 본행사 뿐만 아니라 부대행사까지 모든 행사를 다 감상할 수 있었다.

임동창 예술감독 연출의 '104대의 피아노 공연'과 대금 연주자 이생강 선생을 비롯한 명인들의 연주들도 장엄했지만, 무엇보다 '사람 살린 흑산도 고래 이야기'를 '경호 할아버지 이야기'라는 노래극으로 풀어낸 압해도 초등학교들의 공연이 압권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날씨가 추운데도 야외 공연장을 끝까지 지킨 관객이 3,000명 이상이었던 것은 공연의 진정성 때문이었다. 지역문화 행사라면서 정작 지역의 문화는 담지 못하고 지역 예술인도 배제한 채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 외국의 유명 음악가나 초청해 공연하는 경

우가 많다. 그것이 어찌 지역문화 행사이겠는가?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는 지역성을 담아야 한다. 소멸해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되살리고 전승하는 행사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안 섬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노래극으로 만든 것은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 부합한 기획이었다. 자신에게 낯설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공연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다. 현재의 모든 주류 예술은 변방에서 시작됐다. 이번 신안군 문화의 달 행사 공연은 변방의 문화가 주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기획이었다.

둔장마을미술관 노순택 사진전 섬사람들 생애사 기록

'섬이 더이상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라 보

물들이 묻혀있는 문화의 금광'이란 사실을 일깨워준 멋진 행사였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섬에 사람들이 북적이게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한 행사이기도 했다. 부대행사로 열린 세계 김밥페스타도 좋았고, 하물며 푸드트럭의 음식들도 다 맛있었다.

둔장마을미술관에서 열린 노순택 사진가의 신안 섬사람들 생애사 기록과 사람 사진전도 탁월했다. 섬마을 작은미술관에서 마주한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은도에서 섬의 문화예술과 함께한 모든 날이 다 좋았다.

강풍이 부는 섬마을 야외 공연장에서 이처럼 큰 행사를 준비하느라 관계자들의 노고와 노심초사가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한다. 섬의 부흥을 위해 뼈와 영혼을 갈아넣은 신안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1004](#)

신안아리랑

이번 '2022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를 위해 임동창 예술총감독이 신안의 문화, 자연,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신안아리랑' 악보다. 지난 10월 21일 대한민국 문화의 달 개막식 공연에서 104대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신안 어린이들과 예술그룹 타타랑이 함께 신안아리랑을 불렀다.

1 *예비박* $\text{♩} = 100$ (메) (반)

너 울 - 너 - 울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너 울 - 너 - 울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5 (메) (반) (메)

너 울 - 너 - 울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어 라동 등 어기여 차
너 울 - 너 - 울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어 라동 등 어기여 차

8 (반) (메) (반)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얼 씨구절 씨구출 구 나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얼 씨구절 씨구출 구 나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11 (메) (반) (메)

바람이 - 멈 -춰 사랑하는곳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아 름 다운 천 -사 섬
내마음의보물을 캐러가 -자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쑥 쑥 박 힌 내 -마 음

14 (반) (메) (반)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너 도 나 도 사 랑 해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깊 이 깊 이 박 힌 맘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17 (메) (반) (메)

우 리 모 두 사 -랑 해 -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서 로 서 로사 랑 해
보 여 주 기 싫 -은 맘 -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평 평 뚫 어봐 야 지

20 (반) (메) (다 함께)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신 안 내 사 랑 너 울 - 너 - 울
등 다당 땅 등 다당 땅 신 안 내 사 랑 너 울 - 너 - 울

23

너 울 - 너 - 울 어 라동 등 어기여 차 얼 씨구절 씨구출 구 나
너 울 - 너 - 울 어 라동 등 어기여 차 얼 씨구절 씨구출 구 나

26

바람이 - 멈 -춰 사랑하는곳 아 름 다운 천 -사 섬 너 도 나 도 사 랑 해
내마음의보물을 캐러가 -자 쑥 쑥 박 힌 내 -마 음 깊 이 깊 이 박 힌 맘

29

우 리 모 두 사 -랑 해 - 서 로 서 로사 랑 해 신 안 내 사 랑
보 여 주 기 싫 -은 맘 - 평 평 뚫 어봐 야 지 신 안 내 사 랑

32

아 리아 리 랑 쓰 리쓰 리 랑 아 라 리 가 -났 네

34 *3/4* **Fine**

오 - - 우리네 사랑이 천사대 - 교 따 라

간주

40 *4/4*

44

압해동초 어린이들과 예술그룹 타타랑이 함께 부른 신안아리랑



버려진 섬? 알고 보니 보물섬

⑥ 섬과 무인도

소재별로 섬 문화를 알아보는 연재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발간한 책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말> 중에서 열 가지를 요약 정리해 10회 연재하고, 매회 신안 사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연재 순서는 섬과 바람-물-산-농업-어업-무인도-음식-공동체-유배-바닷길입니다.

도초도와 우이도 사이의 무인도. 신안 무인도는 모두 951개로 저마다 경관과 특징이 다르다.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을 무인도라고 한다. 무인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하나의 큰 섬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칠발도(신안 비금면) 같이 큰 모(母)섬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섬이 뭉쳐 있는 형태도 있다. 또한 가작섬(신안 비금면) 같이 만조 시에는 섬으로 보이지만 간조 시에는 갯벌로 연결된 무인도도 있다. 형태나 모양에 따라 섬을 하나로 볼 것인지, 여러 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아직도 정확한 법이나 근거가 없다.

무인도가 특별히 자연자원이 뛰어나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고,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특정도서는 무인도의 생태계, 지형, 지질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섬을 지정한다. 섬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생물다양성 보전부터 발, 여장 국토 경계선까지, 기능 무궁무진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었다. 까닭에 각종 동·식물의 서식에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신안 등 서남해의 무인도는 갯벌이 발달하여 먼 길을 오고 가는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로 쉬거나 먹이를 섭취하면서, 긴 여행에서 체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인도는 또한 다양한 식물종의 서식환경을 보존하기가 비교적 쉽다. 희귀 식물종의 유전자원은 미래의 자원으로 매우 유용하다.



자라도 주민들이 맨손어업장으로 활용하는 '고사리섬'.

전남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으며, 무인도는 전체의 65.6%를 차지한다. 전라남도에 있는 섬의 특징은 면적이 큰 유인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무인도들이 흩어져 있는 형태이다.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별히 활용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인도는 주변 유인도 주민들의 어장이 되기도 하고, 고사리나 약초를 캐기 위한 밭처럼 활용되기도 한다. 무인도 주변 어촌계에서 툇·세모가사리 등의 해조류, 굴·거북손 등의 패류를 채취한다. 지역에 따라 과거에는 독살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고사리섬(신안 안좌면)의 경우, 주변의 유인도인 자라도의 자라어촌계에서 낚지, 감태 등 맨손어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외부인이 채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알리고 있다.

섬은 그 자리에 있는데 개수는 들쭉날쭉한 이유

무인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기 힘든 다양



암태도-비금도 뱃길에서 만나는 무인도. 뱃사람 조각상과 등대가 이정표 역할을 한다.

한 지형을 보여준다. 특히 전남은 서해안에서부터 남해안에 이르는 해양경관이 매우 다양해 바다의 특징에 따라 섬의 경관도 다르다. 고운 뱃부터 갯벌해안, 모래해안, 자갈해안, 몽돌해안까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형태에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다도해가 결합되면서 빼어난 해양경관을 선물한다.

유인도인지, 무인도인지에 따라 관련 법률이나

주관 정부부처가 달라진다. 무인도를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해양수산부이고, 유인도를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섬의 지적이나 면적 등 토지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섬은 관리주체에 따라 통계가 제각각이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이 남아 있어 오류도 많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지번과 면적을 수정하는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왔다. [1004](#)

주관 부처별 섬 현황

구분	무인도		유인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섬개수	2,876	3,191	472	486
면적(km ²)	76.5	68.7	3,777.5	3,478.7

자료: 해양수산부 2010.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2010-2019), 행정안전부전국 유인도서 통계(2015.12.31) 국토교통부 2016년 지적통계 연부



국토 경계를 정하는 기준 통상기선 & 직선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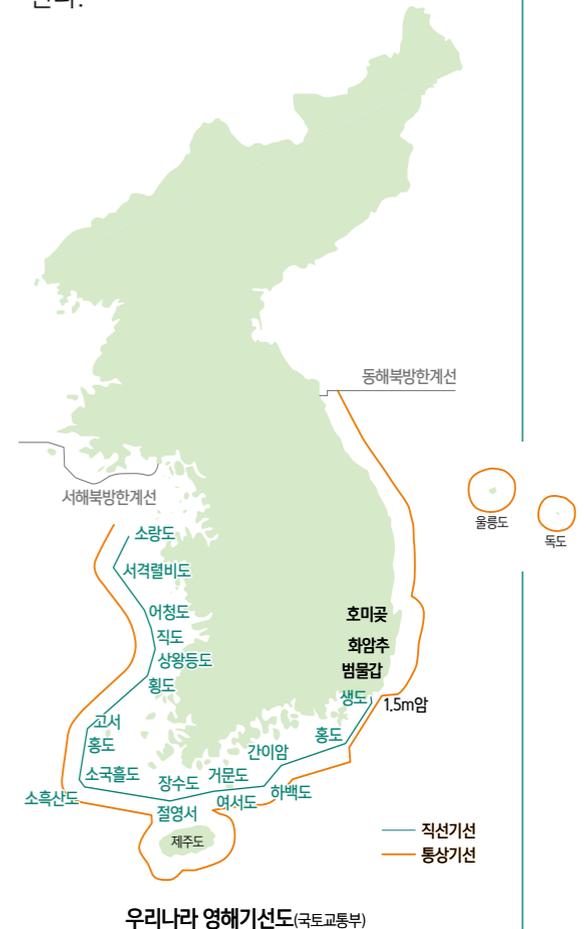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의 경계가 우리 영해의 경계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바다에 있는 섬들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실질적인 경계가 되는 것이다. 섬들을 기준으로 설정한 영해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나뉜다.

통상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육지 부근에 섬이 없을 경우 썰물 때 저조선(물이 가장 많이 빠지면서 드러나는 땅)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이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한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육지 부근에 섬이 많이 산재해 있을 때, 육지의 돌출부 또는 맨 바깥쪽의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 직선기선이다.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의 영일만과 울산만까지가 직선기선으로 영해를 설정한다.

그동안 일본이 여러 차례 독도를 두고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전보다는 영해나 영토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진 추세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국경이 대부분 무인도로 되어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 영해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고 우리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영해기선도(국토교통부)

출처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전라남도, 2020) 중 68-84쪽. 원글 작성자 김재은

김, 바다에서 나오다

송공항 물김 경매 현장

12월 6일 낮 11시 30분, 압해도 송공항 수협 위 판장 앞 선착장. 바닥이 넓적한 '김배'들이 하나둘씩 접안한다. 갑판에는 갓 채취한 물김이 가득 쌓여 있다. 짙은 검은색에 결이 고우면 일반김, 갈색을 띠고 울퉁불퉁하면 곱창김이다. 돌김은 12월 끝자락 즈음부터 나온다. 두 명의 수협 직원이 경매를 준비하고, 예닐곱 명의 중매인이 선착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모두 10대의 배가 정박했다. 많을 경우 30대까지 경매에 참여하는데, 오늘은 적은 편이다. 배 한 대당 김 생산 어가 한 곳이라고 보면 된다. 쌓인 물김 한복판에 생산 어가의 실명이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예외적으로 갑판의 물김이 들로 나뉜 경우가 있다. 어가 두 곳이 한 배를 이용한 경우다. 12시가 되자 곧바로 경매가 시작된다.

“홍길동 씨 앞쪽 곱창입니다. 두 번째 장길산 씨 곱창 뒤쪽입니다. 세 번째 이순신 씨 앞쪽입니다.” 수협 직원이 물김의 주인과 김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고지한다. 중매인들은 원하는 김과 매입 금액을 메모지에 적어 수협 직원에게 건넨다. “홍길동 씨 ○○만 원에 3배언~!”

김배는 바닥이 평평하고 갑판 공간이 넓다.



물김을 싣고 오는 김배. 그 뒤로 지주식 김 양식장과 천사대교가 보인다.



김배들이 경매 장소에 하나 둘씩 자리를 잡고 있다.



맨 우측은 '두 집'서 채취한 물김을 한 배에 싣고 와, 구분을 위해 갈라놓았다.



수협직원들이 경매를 준비한다. 중매인들은 물김의 품질과 생산자를 점검하며 '속으로' 가격을 매긴다.

일반김은 짙은 검은색에 매끈하고, 곶창김은 갈색에 상대적으로 결이 거칠다. 돌김은 12월 끝자락부터 나온다.



경매 시작. 가격이 적힌 종이를 수협 직원에게 건네는 중매인들. 20분이 채 되지 않아 10대 분량의 물김이 경매를 마쳤다.



경매의 기본 단위는 1만 120kg. 배 단위로 팔린 물김의 전체 무게를 재기 위해 선원들이 김망에 물김을 담고 있다.



3번 중매인에게 홍길동 씨의 김이 〇〇만 원에 팔렸다.* 구입의 기본 단위는 120kg이다. 경매를 마치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가슴장화 옷을 입은 선원들이 삽으로 김망에 김을 담는다. 계근대와 연결된 '포스시스템'에 생산어가 자신의 카드를 낸다. 고정식 크레인과 이동식 포크레인이 김망을 들어 올려 계근대에 놓는다. 소유자와 총량이 표시된 전표가 포스시스템에서 나온다. 이 정보는 전산망을 통해 수협에도 곧바로 전송된다. 1시 즈음 경매가 마무리됐다. 물김을 실은 대형 트럭도 송공항을 떠난다. 트럭들은 중매인들이 지정한 김 제조공장으로 간다. 거기에서 물김의 대변신이 진행될 것이다. 말리고 펼치고 자르고 모아 '한 톳'의 마른김, 혹은 비닐 포장지에 담긴 한 단위의 '상품'으로 탄생한다. [100A](#)

사진 오종찬 글 이정우

*경매가격은 매회 변동한다.



물김의 주인이 카드를 대고 나면, 포크레인이 계근대에 물김을 올린다. 무게를 재고 나면 전표가 나오고, 같은 정보가 수협 전산망으로 곧바로 전송된다.



트럭에 실리는 물김. 중매인이 지정한 제조공장으로 옮겨가 여러 종류의 '김 상품'으로 대변신할 것이다.



물김은 당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매를 진행한다. 통계는 연 단위(1-4월 + 10-12월)로 집계된다. 2022년 1-11월 송공항 물김 경매총액은 약 145억5천5백만원. 2023년 같은 기간 경매 총액은 약 200억6천만원이다. 신안의 물김 경매 장소는 압해도 2곳, 지도도 2곳, 안좌도 2곳 등 총 6곳이다.



신안 바다 위에 무료 와이파이

2024년 1월부터 신안 여객선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됐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없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었다. 새해 시행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로 이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병풍도, 자은도, 비금도, 도초도 등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9척의 여객선에 먼저 와이파이 설치가 예정되며, 앞으로 서비스 범위가 더 확대된다. 현재 신안군은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 등 60개소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최초 ‘행복더하기 통합복지카드’ 서비스 오픈

신안군이 분야별로 분산된 복지 혜택을 하나로 통합해 이용 편의를 개선한 통합복지플랫폼 ‘행복 더하기 통합복지카드(이하 행복카드)’ 서비스를 지난 12월 1일 개시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 대상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분야별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카드 발급·이용·조회를 한 번에 제공받는 통합서비스이다.

지금까지 군민들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종류별로 2~3장의 교통카드를 갖고 다녀야 했다. 또한 관내 관광지, 공중목욕탕, 이·미용 등의 이용객 데이터 집계가 어려워 신안군의 복지정책 관리나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이제 행복카드 하나로 대중교통수단, 생활 밀접 시설(목욕탕, 식당, 이·미용 등), 관광지 무료 혜택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도 ‘행복 더하기’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홍도분교 & 신의초교, 지역 살리는 거점으로

신안군은 폐교 위기의 학교,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을 살리기 위해 대담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흑산도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해 주거시설 보장, 일자리 제공, 햇빛아동수당 지급 등을 내걸었다. 전국에서 180여 건의 문의, 두 차례의 서면심사, 현장 방문 등 열띤 관심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2024년 봄부터 4세대가 홍도에 전입해 10여 명의 학생이 홍도분교를 다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친구들이 없어 목포로 전학 가야만 했던 학생

들이 돌아오면 홍도분교 교정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신의면에서는 종사자들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및 전학생 부모에게 주택과 함께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2024년 3월 개학 이전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신안군은 아토피와 비염을 앓는 학생들을 위해 천일염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고, 신안교육지원청과 지난 12월 4일 신안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신의초등학교다. 9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는 다르게 신의초등학교는 바다, 바람, 갯벌 등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한 천일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04 커피로드’ 바리스타 탄생

신안군이 감성 여행지로 부상하면서 ‘1004 커피로드’ 조성을 위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개설해, 지난 11월말 1기생 25명을 배출했다. 모집요강을 배부하자마자 신청 인원이 다 채워질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교육 과정은 커피머신을 사용하는 일반 바리스타 과정과 달리, 교육생이 직접 생두를 볶고, 볶은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수료식 직후 교육생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일카페를 열어 신안군청 직원들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제공했다. 신안군은 ‘1004 커피로드’ 바리스타 과정을 통해 지역 카페에 새로운 인재를 계속 보충할 예정이다. 지역 커피 문화 수준을 높여 신안 관광 산업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1004 커피로드 바리스타.





2023년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기초지자체 중 유일

신안군은 지난 11월 2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탄소중립 우수사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신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는 광역 4(강원, 부산, 대구, 인천), 기초 1(신안), 기업 2(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SK인천석유화학) 곳이다. 우수사례 표창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단체장의 관심, 사업성과 창출, 타 지자체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평가했다.

신안군 주요 정책은 총 3분야로 블루 카본(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 복원사업, 인공습지 조성, 유용 미생물 보급), 그린 카본(암태도 지방정원 조성,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등 대규모 숲 조성), 신재생에너지(신안 해상풍력 8.2GW, 태양광발전 사업 10GW,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육성 및 활용책이다. 신안군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3 ESG 종합평가 전국 군 단위 1위

신안군이 ESG(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평가에서 군 단위 지역 중 1위, 전국 5위의 성과를 기록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정주여건, 삶의 질, 행정역량과 관심도 수준 등을 포함한 60개 지표, 106개 세부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신안군은 환경(E), 사회(S)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이 평가 결과는 신안군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국가와 지자체 수준에서 인정 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신안군은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압해 동서~신장 4차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압해도 신장리~복룡리 도로 시설 개량공사 중 압해읍소재지(동서리)부터 압해대교(신장리)에 이르는 6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안이 최근 제6차 재정사

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은 압해읍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과 77호선의 통행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목표로, 총사업비 658억 원을 들여 총연장 10.71km에 대해 국도 설계기준에 맞는 편도 2차선 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2008년 3월 착공해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천사대교 개통 이후 변수가 생겼다. 일일 교통량이 폭증하고 교통사고가 급증해 차선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것.

신안군은 사업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이 가장 절실한 신장~동서 6km 구간의 4차로 확장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한 절차를 거쳐 이번 결과를 얻었고, 추가사업비 255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약 6개월의 설계변경 기간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재착공할 예정이다. 최종 준공 예정시기는 2027년이다. 개통 후 압해도-천사대교를 경유하는 신안 중부권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신장 4차로 확장 예정구간.





신안뉴스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지난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신안군 흑산군도와 우이도, 진도군 조도군도에서 행해지는 전통어업이다. 동일한 어업 기술과 문화를 보유한 신안군과 진도군이 지난해 3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공동 신청해 성과를 이뤄냈다.

이 어업은 맨손, 미역낫 등을 활용하는 원시적 방법으로, 조간대에 자생하는 돌미역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배하는 공동체 어업이다. 특히 미역 서식처(미역밭) 관리를 위한 전통 어업기술인 ‘물주기’와 ‘갯닦기’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으로 신안군은 진도군과 함께 3년간 총 7억 원(국비 70%, 군비 30%)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23년 하반기 장학생 등 150명 선발, 1억3천만 원 지급

(재)신안군장학재단은 신안군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 11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확정하고, 신안군 초·중·고·대학생 등 150명(우수 장학생 36명, 내 고장 진학 30명, 저소득 장학생 53명, 만학도 7명, 다문화가정 21명, 낙도 장학생 3명)에게 장학금 1억3천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도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을 선발했다.

신안군장학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480명의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5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신안군장학재단 기탁 현황

기탁 기간 2023.9.8 ~ 12.6. 총액 236,340,000원

지정기탁 해주신 분들

신의면 천일염생산자 협의회 35,000,000 도초 김운산·최재심 부부 30,000,000 대한한돈협회 신안군지회 20,000,000 에스엠이엔씨(주) 대표 이용걸 20,000,000 신안천사김 15,000,000 (주)현진토건 대표 정민교 10,000,000 신안군이장연합회 10,000,000 신의면 상태교회 박준배 장로 10,000,000 신의면 이철순·김순자 부부 10,000,000 신안군작물보호협회 10,000,000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10,000,000 지도 형제수산업어조합법인 대표 주정호 10,000,000 흑산 우림수산업통 대표 김선규 10,000,000 박혜순·박명금 자매 7,725,000 신의면 여성자원봉사자회장 박정애 5,000,000 압해읍여성단체협의회 5,000,000 주병률·최선희 농촌지도관 부부 5,000,000 흑산 화성전복 장상민 5,000,000 신의면 자원봉사자회 3,000,000 미성공방(도초면) 1,500,000

정기후원 해주신 분들

박용철·김원심(도초) 박종운(임자하나로베이커리) 최원상 박성진 고성민 김용수 최영택 강기춘 곽호남 김계형 김도남 김민영 김천일 박정배 양국진 장미희 정승일 최광영 최미고은경 김대중 김대현 김명기 김상희 김은정 김현희 모현경 박부일 박수정 박효선 백미숙 장희웅 정승기 정영윤 정창균 조영학 최미영 김완수 문지연 정은재 박미선 탁권철

신안 장학기금 기탁하시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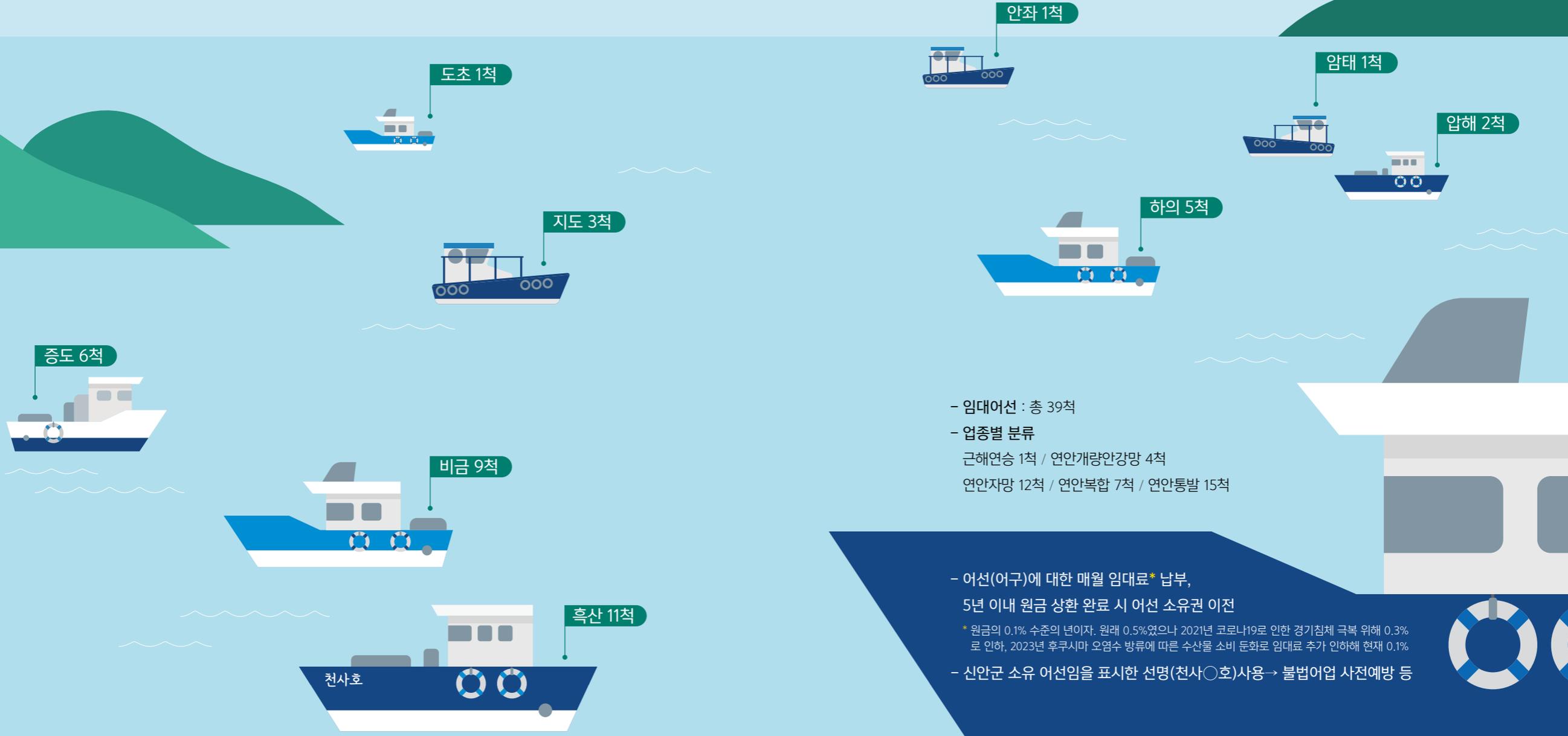
문의 (재)신안군장학재단 061-240-8777
 후원계좌 농협 301-0165-0150-11 (예금주 재단법인 신안군장학재단)



청년어민에게 배를 비상의 날개를

신안군 청년어선구입 임대사업

어선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60세 미만 어업인을 위해 신안군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어선 및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꾀하는 선진적 정책이다. 2022년 해양수산부는 신안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2019년 가을, 귀어한 지 6년 된 김모(당시 48·비금도) 씨는 신안군으로부터 어선 한 척을 임대받았다. 마을 동생들과 한 팀을 이뤄 신안군의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구입 임대사업’ 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것. 김 씨가 5년 동안 신안군에 매달 상환하기로 한 이자는 당시 배 가격의 0.5%로, 파격적으로 저렴한 금리였다. 그는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하고 있다. 다 갚고 나면 어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김 씨의 비금도 팀이 임대한 배는 10톤 규모다. 신안군이 첫 번째로 임대한 배로, 이름은 ‘천사1호.’ 주로 조기, 갈치, 병어 등을 잡고 있다. 흑산도 팀이 임대한 ‘천사2호’는 먼바다 조업을 주로 하고 있다.

‘천사호’라는 이름은 1004섬 신안을 상

징한다. 동시에 파수꾼 역할도 하고 있다. 배에 적힌 천사(1004)라는 이름이 신안군 소속임을 드러내 조업현장 인근에 중국이나 타 지역 배들이 나타나 불법조업을 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에 물고기는 널려있는데 그간 배가 워낙 작아서 조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외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신안 어부들은 눈앞에서 물고기를 보고도 소득을 못 올리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까웠다. 천사1호가 아직은 임대어선이지만 우리 배나 마찬가지다. 동생들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조업하고 있다.”

2020년 봄부터 권모(당시 40·하의도) 씨는 ‘천사5호’를 임대해 조업하고 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귀어했다가, 신안군의 어업 지원정책들을 접하면서부터 생활이 풀리기 시작했다. 권 씨는 2019년 신안군이 개설한 수산양식학교에 1기로 참여해 김 양식을 배웠다. 2020년 3월에는 청년 어선구입 임대사업에 선정돼, 배를 임대하게 됐다.

**“지자체의 지지를 받는 느낌 따듯”
연이자 0.5%에서 0.1%까지 낮춰**

신안군 어선임대사업은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신안군의 섬과 바다를 인생2막의 터전으로 삼고자 귀어·귀촌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다. 귀농보다 상대적으로 초기 정착비용 부담이 큰 귀어의 특성 때

문이다. 어선, 어구, 저장고, 조업 기술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무리 작은 중고 배라도 마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귀어민의 초기 정착을 도우려던 신안군의 노력이 2019년 어선임대사업으로 특화됐다. 당시 실시한 임대 수요조사에서 큰 호응을 확인했다. 144명의 어업인이 모두 58척의 어선을 신청한 것. 곧바로 신안군은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신안군어선업육성 협회를 설립했다. 사업비는 신안군이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안군은 어선과 어구를 구입해 어업인에게 임대한다. 어업인은 연간 사업비의 0.5%(현재는 0.1%)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한다. 원

신안바다를 누비는
천사호 1호-11호





2019.12.07. 비금도 원평항 천사1호 취항 기념식.



2021.05.18. 흑산도 청년소득 임대어선 4대 취항식.

금 상환을 완료한 어민은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이 사업에 지원하는 어업인은 먼저 (사)신안군어선업육성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어업인은 임차어선의 선체, 기관, 의장품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어선을 원상회복 상태로 돌려줘야 한다. 임차한 어선에 대해 어선원부에 신안군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보조금의 1.8배 금액이다. 임차인과 신안군이 상호 공증을 해 천사호가 신안군의 재산임을 표시한다. 이러한 계약 내용은 신안이라는 지역 공동체와 어민이 한 몸이라는 소속감을 만들어낸다. 이 사업을 고리로 신안군과

어민이 상호신뢰를 쌓아나간다.

2019년 말부터 ‘천사호’들이 하나둘 출항하기 시작했다. 2019년 12월 천사1호, 천사2호가 계약을 맺었다. 2023년 11월 현재, 천사39호까지 출항하고 있다. 그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92억 원이 소요됐다. ‘소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생산시설을 임대한 것이기에 ‘투자’의 의미가 담겨있다.

신안군은 2020년 12월부터 저렴한 0.5%의 임대료마저도 0.3% 수준으로 낮췄고, 원금 상환도 함께 유예해 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이었다. 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기를 감안해 0.1%까지 낮췄다.

압해도의 한 어민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보다, 내가 정착한 지자체가 나를 환대하고 지지해준다는 느낌이 심정적으로 큰 힘이 된다. 귀어귀촌을 하려면 지역사회에 잘 섞여 들어가야 한다. 천사호라면 망망대해에서 혼자 타고 있더라도 혼자 있는 기분이 아닐 것 같다.”

신안의 정책, 중앙정부를 바꾸다 해수부의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전국 최초로 어선임대사업을 마련해 홀로 향해하던 신안군에 2021년 말 낭보가 날아들었다. 해양수산부가 신안군 사례를 우수 수산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모델

로 삼아 2022년부터 어선임대사업을 전국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 해양수산부는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신안군 사업을 골자로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 맞춰 전국 어선들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신안이 쏠아 올린 공이 전국 귀어정책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신안군은 천사1000호의 출항까지 꿈꾸고 있다. 또한 어선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다. 초보 어민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어선 직무 기본교육, 어업실습, 어업멘토링, 수산경영

컨설팅, 어선안전교육 등 어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전수할 계획이다.

또 어업환경 변화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신안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업구역이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안군은 기존어업 소멸과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 어선을 매입해 어선임대사업에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매년 100여 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안군은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공모사업 응모, 해양수산부 시범사업 추진,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¹⁰⁰⁴

신안군 청년어선구입 임대사업 추진과정

-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8.12.28.
- 신안군 통발어선 펀딩을 위한 귀어 귀촌 활성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2019.4.
-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7.5.
- 사단법인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 설립 2019.10.1.
- 천사1호, 천사2호 임대계약 추진 2019.12.
- 해양수산부, 신안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 규모의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시작 2022.1.
- 천사호 39호까지 임대(어업인 총 55명 혜택), 총 44억 원의 어획 실적 2023.11.
-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과 군비 34억 원 등 총 92억 원 투입 2019~2023

우리 신안은 이미 용龍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우량 군수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신안군민 모두 건강하시고, 추진하는 일들마다 크게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8기(2022년~) 주요목표인 소득창출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신안의 햇빛연금이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에 이어 임자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신안군 전체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햇빛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한 해 햇빛 아동수당 8억5백만 원을 총 4,029명의 아동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인구 유입과 주민 소득 증가, 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

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위한 어선 임대 사업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귀어·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55개 어가가 39척의 어선을 임대해 총 44억 원의 어업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된 왕새우, 김, 개체굴 양식학교는 청년들이 신안을 다시 찾는 귀어·귀촌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체굴 양식에는 100여 명이 넘는 교육생이 수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14개 읍면의 300여 농가가 경쟁력 있는 묘목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지도읍의 경우, 조합원 30명이 썸머라일락 정원수를 생산하여 총 15억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안군, 정원수로 가꾸는 초록빛 1004섬”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 2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기쁜소식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에서 신안군이 유일하게 탄소 중립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안군에서 10년 동안 노력한 결과로 블루카본, 그린카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작년과 올해 국가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신안군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안군은 포기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 저예산 상황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로 총 86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한정된 재정 상황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신안군은 군민들과 상시 협력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신안, 소득을 창출하는 신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0월, 폐교 위기의 흑산도 홍보분교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신안군이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해 학생을 모집했는데 180여건의 전화문의 쇄도 후 최종 4세대 학생 10명이 입학, 또는 전학을 오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안군의 인구소멸 및 폐교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신의면에 아토피와 비염있는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정지역에서 뛰어놀며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등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토끼의 해에서 용의 해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토끼는 부지런함을, 용은 큰 성취를 상징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문화예술, 지역의 품격 등에서 신안은 이미 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은 지금까지 군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안군수 **박우량** 올림

